

# 민중건강운동 브리프 2021-03

PHM Brief 2021-03

## 코로나19 진단키트 산업의 공공성: 정부와 진단키트 기업이 가져야 할 공적 책무성



**코로나19 진단키트 산업의 공공성:  
정부와 진단키트 기업이 가져야 할 공적 책무성**

출판일 || 2021년 6월 22일

필진 || 한국민중건강운동(PHM Korea)  
코로나19 맥락에서 의료기술에 대한 공평한 접근 촉진하기(EACT)  
프로젝트팀

(가나다순)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박지원 (PHM Korea 펠로우)  
박지은 (PHM Korea 펠로우)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활동가)  
임소형 (PHM Korea 펠로우)

펴낸 곳 || (사) 시민건강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3길 36, 2층  
전화: 02-535-1848 / 팩스: 02 581-0339  
누리집: [www.health.re.kr](http://www.health.re.kr)  
전자우편: [people@health.re.kr](mailto:people@health.re.kr)

ISBN 979-11-87195-18-4

## 〈차 례〉

1. 들어가며 .....	1
2. 코로나19 진단키트: 산업화와 가격 및 제조비용 불투명성 .....	2
3. 코로나19 진단키트: 기업에 대한 ‘조건 없는’ 공적 지원 .....	4
3.1. 공공연구기관 개발 기술의 이전 .....	4
3.2. 연구개발비 지원 .....	5
3.3. 생산 및 수출 지원 .....	6
3.4. 규제 완화 .....	7
4. 결론: 정부와 진단키트 기업이 가져야 할 공적 책무성 .....	10

## 〈표 차례〉

[표 1] 2020년 영업이익 기준 상위 5개 제약 및 바이오 기업 .....	2
[표 2]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진단키트 기술 이전 현황(2020.3~2021.6) .....	5

## 〈그림 차례〉

[그림 1] 진단키트 등 의료기기를 포함한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8	8
---	---

## 1. 들어가며

-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된 지난해 1월,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이하 질병)의 감염병분석센터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시약업체와 만나 질병이 개발한 진단시약 프로토콜을 공유하고 진단키트<sup>1)</sup> 개발을 독려했음. 1월 31일, 질병은 기존 검사법과 비교해 확진 소요 시간이 4분의 1로 단축된 자체 개발 검사법을 도입하였음. 2월 4일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총 7개 기업<sup>2)</sup>의 진단키트를 긴급사용승인<sup>3)</sup>하였음.
- 즉, 코로나19 초기 진단키트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을 위한 정부의 개입을 통해 빠르게 개발되고 승인되어 공급에 이를 수 있었음.
- 그간 진단키트는 “K-방역”의 탄생에서부터 최근의 자가진단키트 승인과 필요성에 대한 논란까지 쉽게 정치화되어왔음. 반면 진단키트의 개발부터 공급에 이르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부와 진단키트 기업의 공적 책무성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음.
- 따라서 본 이슈브리프는 코로나19 진단키트를 ① **산업화와 가격 및 제조비용 불투명성** ② **기업에 대한 ‘조건 없는’ 공적 지원**이라는 두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함.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이 진단키트 산업에 더 책무성을 가져야 함을, 유무형의 공적 지원을 통해 개발된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함.

1) ‘진단키트’는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일종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의에 따르면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시약, 대조 혹은 보정물질, 기구, 기계, 장치, 그리고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임(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9). 알려져 있듯이 코로나19의 진단에는 여러 가지 검사법이 있고 이에 따라 검사 장비, 검사 시약, 검사 시스템 등의 명칭과 구분이 세분되지만,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진단키트와 시약, 소프트웨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진단키트’로 통칭하기로 함.

2) 코젠바이오텍, 씨젠, 솔젠트, SD바이오센서, 바이오세움, 바이오코아, 웰스바이오

3)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되어 의료기기의 긴급한 사용이 필요하나 국내에 허가 제품이 없거나 공급이 부족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질본 포함)이 요청한 제품의 허가를 면제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상의 제도

## 2. 코로나19 진단키트: 산업화와 가격 및 제조비용 불투명성

- 알려져 있듯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 생산한 국내 기업들은 이를 통해 상당한 영업이익을 거두었음. 지난해 매출 1조 원 이상을 올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수가 사상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하였는데, 아래 [표 1]은 이 중 2020년 한 해 영업이익 기준 상위 5개 바이오·제약 기업의 목록임.
- 이 중 SD바이오센서와 씨젠은 2020년 처음으로 매출액 1조 원 이상을 달성하였음. 이들의 영업이익과 매출은 주로 코로나19 진단키트 판매에 의한 것으로 실제 두 기업은 진단키트 보급 이후인 2020년에 전년 대비 급속한 성장을 보였음. SD바이오센서는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이 23배, 영업이익이 486배 급증하였으며, 올해 1분기 만에 작년 전체 매출액의 70%를 달성할 만큼 코로나 이후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고 있음.<sup>4)</sup> 씨젠도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9배, 영업이익이 30배 수준으로 급증하였음.<sup>5)</sup>

[표 1] 2020년 영업이익 기준 상위 5개 제약 및 바이오 기업

순위	기업명	영업이익 (원)	매출액 (원)	매출액 영업이익률 (%)
1	SD바이오센서 <sup>6)</sup>	8,000억	1조 6,000억	50%
2	셀트리온	7,640억	1조 8,687억	40.9%
3	씨젠	6,532억	1조 470억	62.4%
4	셀트리온헬스케어	3,728억	1조 7,544억	21.2%
5	삼성바이오로직스	2,689억	1조 749억	25.0%

출처: 한국경제(2021.7)에서 가공

4) 매일경제. (2021.5.21). '코로나 진단키트' SD바이오센서 내달 상장...SKIET 부진 떨어질까. <https://bit.ly/3cXQrhd>

5) 헬스조선. (2021.2.18). 씨젠, 지난해 매출 1조1252억... '1조 클럽' 가입. <https://bit.ly/35FI19h>

6) 비상장으로 회사추정치에 따름.

7) 한국경제. (2021.1.20). 코로나 발판 삼아 '퀀텀점프'...작년 '매출 1조 클럽' 첫 10곳 넘었다. <https://bit.ly/3wOCzxN>

- 즉 코로나19 진단키트는 막대한 이윤 추구를 가능케 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였고, 이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시장의 침체 속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버팀목”이 되었음.<sup>8)</sup> 진단키트의 정확한 연구개발비 및 제조비용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이들이 적절한 가격으로 책정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표 1]의 영업이익 기준 상위 5개 제약 및 바이오 기업 중 진단키트 기업인 SD바이오센서, 씨젠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제약 기업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음.
-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연구개발과 공급의 과정에는 정부의 각종 형태의 공적 지원이 있었음. 아래 두 장에서는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 허가에서 나타난 정부의 공적 지원을 살펴봄으로써 공적 책무성의 부재를 지적하고자 함.

---

8) 산업통상자원부. (2020.5.19.). 보도자료: 산업부 장관 “바이오헬스 산업, 우리경제 새로운 버팀목”.  
<https://bit.ly/3gNljkG>

### 3. 코로나19 진단키트: 기업에 대한 '조건 없는' 공적 지원

- 코로나19 진단키트 기업에 대한 정부의 공적 지원은 크게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이전, 연구개발비 지원, 생산 및 수출 지원, 규제 완화로 나뉘볼 수 있음.

#### 3.1. 공공연구기관 개발 기술의 이전

- 공공연구기관은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공공 기관으로 결과물의 소유권 역시 공공에 있음. 그러나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코로나19 진단키트 기술은 개별 민간 기업에 독점적으로 이전되며 공유 가능한 기술이 아닌 이윤 추구의 수단이 되었음(표 2).
  - 전자부품연구원(KETI)의 경우 개발한 신속 진단키트의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기관 내 'KETI 기업협력플랫폼'을 통해 적극적으로 민간에 기술이전을 시도 중임.<sup>9)</sup>
- 또한 대다수의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업명만을 공개하였고 의사결정의 과정, 기술이전의 형태, 기술료나 기술이전 보상금 등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음.
  - 일례로 국방부는 국군의학연구소가 개발한 진단키트의 기술이전과 수출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현실은 실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회사명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황임.<sup>10)</sup>
  - 현재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만 기술료(선급금 3억 원, 경상 실시료 3%)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였음.

9)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날짜 없음). 기업협력플랫폼. <https://bit.ly/2Sn14Du>

10) 한국경제. (2020.5.26.). 국군의학연구소 개발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추진 <https://bit.ly/35Wq7Ax>

[표 2]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진단키트 기술 이전 현황(2020.3~2021.6)

공공기관명	기술이전을 한 회사명	계약 체결일	기술료 혹은 기술이전 보상금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핵심단백질지원센터	엠모니터	2020.4	비공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진시스템	2020.4	선급금 3억 원, 경상 실시료 3%
국군의학연구소	5군데 기업 (기업명 비공개)	2020.5	비공개
한국화학연구원 신종바이러스(CEVI) 융합연구단	프리시전 바이오	2020.7	비공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플렉센스	2021.5	비공개

주: 온라인에서 가용한 자료를 토대로 하였으며 공공연구기관의 모든 기술이전을 망라한 것이 아님.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sup>11)</sup>; 동아사이언스(2020)<sup>12)</sup>; 조선일보(2020)<sup>13)</sup>; 이투데이(2020)<sup>14)</sup>; 이  
데일리(2021)<sup>15)</sup>

### 3.2. 연구개발비 지원

- 매년 정부는 학술연구용역과제 명목으로 진단키트 기업들에 대한 연구개발비용을 지원함. 실제 지원 규모는 공개된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지만,<sup>16)</sup> 지면상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모든 기업을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 함.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이 중 SD바이오센서를 사례로 정부의 공적 지원과 결과물 활용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함.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7.30). 보도자료: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 제작을 위한 신속진단기술 개발. <https://bit.ly/3wLyfQ2>

12) 동아사이언스. (2020.5.15). "코로나 진단기술로 국내 특허 1호 타이틀 땀어요". <https://bit.ly/3gQf94x>

13) 조선일보. (2020.4.9). 6시간→20분으로...코로나 진단 시간 크게 줄어든다. <https://bit.ly/3iZZSAI>

14) 이투데이. (2020.4.29). KIST 김상경 책임연구원, '이달의 KIST인상' 수상. <https://bit.ly/2Uqu5Pf>

15) 이데일리. (2021.5.10). 메디콕스, '플렉센스 코로나 진단키트' 국내 및 유럽 독점총판 계약. <https://bit.ly/3gWnROH>

16) 국책 연구의 하나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공적 지원 현황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NTIS)나 정부 기관에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연구성과물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해도 기업이 경영상, 영업상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코로나19 진단키트 기업들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현황은 공개된 규모보다 더욱 많고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 SD바이오센서:

- SD바이오센서는 다른 진단키트 기업(코젠 바이오텍, 솔젠트)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로부터 감염병 진단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축적하기 위하여 지난 5년간 52억 1천만 원을 지원받음.<sup>17)</sup>
- 또한 이 기업은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항체형성 및 감염 이력 확인을 위한 항체 진단제 개발(Development of serological tests for SARS-CoV-2)’이라는 과제명으로 1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바 있음.<sup>18)</sup> 연구내용은 (1) 코로나 19 효소면역진단법(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엘라이자)<sup>19)</sup>용 특이항원 생산 및 확보 (2) 효소면역진단법 시제품 개발 및 성능평가임.
- 요컨대 SD 바이오센서의 진단키트 기술에는 과기부와 질병관리청, 즉 정부의 지원이 있었음.
- 이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는 아직 열람이 가능하지 않았으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SD바이오센서가 ‘실용화대상’의 ‘등온핵산증폭 PCR 기반 지카/덴기/치쿤구니아 바이러스 진단 기술 개발(Development of molecular diagnostic kit for ZIKV, DENV and CHIKV)’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8억 5,440만원<sup>20)</sup>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과제에 대한 보고서가 열람 가능하였음. 보고서는 ‘감염병 대유행시 조기 진단을 통한 선제적 대응 가능’,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 등 기술의 공적 활용을 막연하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언급하고 있음. 한편 이 연구로 SD 바이오센서는 4건의 특허를 출원하며 국가 지원으로 개발된 기술에 대한 권리를 배타적으로 가지게 되었음.

### 3.3. 생산 및 수출 지원

- 기술이전이나 연구개발비의 직접적인 지원 외에도, 정부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진단키트 기업의 생산과 수출을 지원하였음. 지난해 5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5.18). 문재인 정부 3년, 과학기술 및 ICT 부문 성과. [https://blog.naver.com/with\\_msip/221968627858](https://blog.naver.com/with_msip/221968627858)

18)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날짜없음). 국가R&D과제정보 (과제고유번호: 1465031478). <https://www.ntis.go.kr/ThSearchTotalList.do?sort=RANK%2FDESC&ntisYn=&searchWord=1465031478>

19) 엘라이자란 효소면역반응을 이용하여 혈액을 분석, 감염의 여부를 진단하는 방식으로, 주로 빠른 진단을 위한 기기나 제품에 사용되는 방식임.

20)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날짜없음). 과제. <https://bit.ly/3wHITlr>

통한 민간 주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진단키트 기업의 생산을 지원하였음. 이들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전자와 함께 진단키트 업체를 방문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현장관리 프로세스 정립과 바코드 시스템 도입 등 생산 효율과 품질을 위한 지원을 하였음. 해당 사업은 2020년 2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되었음.<sup>21)</sup>

- 해당 사업을 지원받은 진단키트 기업 중 하나인 솔젠트는 지난해 6월 보고회를 통해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생산성이 73% 증가하였음을 발표하였음.<sup>22)</sup>

-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초기부터 'K-방역'과 'K-바이오'의 핵심으로 떠오른 코로나19 진단키트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한 다양한 수출지원 전략을 시행해왔음.

- 가령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진단도구(키트) 수출지원 방안으로 코로나 검체를 활용한 임상 유효성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검체 보유 의료기관과 진단 기업 간 연결(매칭) 서비스를 제공하였음.<sup>23)</sup>

### 3.4. 규제완화


- 끝으로 정부는 규제완화의 방식을 통해 진단키트 기업을 지원하였음. 이는 코로나19 이전과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정부는 2019년 3대 차세대 주력산업 중 하나로 바이오 헬스 산업을 선정하고, “바이오헬스 강국 만들기”를 명분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왔음(그림 1).<sup>24)</sup> 이러한 사례 중 하나로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을 들 수 있음.

21) 중소벤처기업부. (2020.05.11). 보도자료: 마스크 대란 해소 1등공신 스마트공장, 진단키트 생산에 도입. <https://bit.ly/3wT34Cw>

22) 중소벤처기업부. (2020.06.10). 보도자료: K-진단키트(솔젠트),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생산성 73% 증가. <https://bit.ly/3zOLqBt>

23) 보건복지부. (2020.03.27.). 보도자료: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허가 임상평가 지원한다! <https://bit.ly/3d1umhP>

24) 정책주간지 공감. (2020.05.18). 코로나19 뚫고 세계의 희망으로 'K-바이오'. <https://bit.ly/3xGBSXz>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 과제		자료: 관계부처 합동
4대 분야	개선 과제 내용	
<b>신산업 연구환경 조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 데이터 활용 및 민간 개방 확대</li> <li>· 인체 폐지방을 재활용한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 허용</li> <li>· 마이크로바이옴 등 파생 연구자원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li> <li>· 바이오 분야 대한민국 명장제도 개선</li> </ul>	
<b>혁신 의료기기 육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R, AR 의료기기 품목 신설</li> <li>· 혁신 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li> <li>·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으로 혁신기기 조기 시장진입</li> </ul>	
<b>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 및 건강인센티브 제도 도입</li> <li>· 소비자 직접의료 유전자검사 허용범위 확대</li> <li>·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제 단일화</li> </ul>	
<b>이중 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 철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생산시설 규모제한 완화</li> <li>· 의료기기에 대한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 면제 확대</li> <li>· 의료기기 폐기물에 대한 환경부담금 면제 확대</li> <li>· 의료기기 광고 규제 합리화</li> <li>· 의료기기 가격정보, 대금지급 기한 설정 등 유통 투명화</li> </ul>	

**[그림 1] 진단키트 등 의료기기를 포함한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2020)<sup>25)</sup>

○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 지난해 5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지원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와, 인증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약칭 의료기기산업법)’<sup>26)</sup>이 시행 되었음. 이 법을 근거로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는 30개 의료기기 기업을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하였으며 이 가운데 ‘체외진단의료기기’에 주력하는 기업으로는 ‘혁신선도형 기업’에 씨젠이, ‘혁신도약형 기업’에 노보믹스, 바이오니아, 젠큐릭스, 피씨엘이 선정 되었음.<sup>27)</sup>

25) *ibid.*

26) 보건복지부. (2019.4.30).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https://bit.ly/3gKJ7H1>

27) 보건복지부. (2020.11.30).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30개 최초인증으로 의료기기산업 집중육성에 나선다!

-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은 정부 지원사업 우대, 세제·규제 완화,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추가로 정부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정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육성에 필요한 기업 맞춤형 지원정책·제도를 추가로 발굴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힘.<sup>28)</sup>
- 또한 진단키트의 긴급사용승인 이후 식약처는 ‘수출용 허가의 정식허가 전환, 진단시약 등 체외 진단제품에 대한 체계적 허가 지원 시스템 구축, 진단기법 등의 국제표준화 추진’을 준비하며 ‘K-방역의 명성을 확고히 하고자’ 하였음.<sup>29)</sup> 특히 긴급사용승인과 수출용 허가 제품의 정식허가 전환을 위해, 단계별 밀착 지원을 통해 허가 신청서류 준비기간(30일 → 7일), 임상시험 개발과 시험실시 기간(90일 → 22일), 심사·허가 기간(80일 → 30일)을 대폭 단축할 계획임.
- 요컨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부는 유무형의 지원을 통해 진단키트의 개발과 생산, 수출을 ‘밀어주었으나’, 이러한 공적 지원의 조건으로 가격의 투명성과 적정성, 연구개발 성과의 공개, 중·저소득 국가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노력 등 책무성을 기업에 요구하지는 않았음.** 정부가 권한 행사를 포기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스스로 나서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연구개발 지원과 국가 기관의 힘을 이용한 규제 완화가 실질적인 공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무성 조건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이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서의 ‘특정 기업 몰아주기’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음.

---

<https://bit.ly/3j1kkRG>

28) *ibid.*

29)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5.22.). 보도자료: K-방역 진단시약, 포스트 코로나까지 살핀다.

<https://bit.ly/3gK6vWc>

## 4. 결론: 정부와 진단키트 기업이 가져야 할 공적 책무성

- 지금까지 본 이슈브리프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기술에 대한 공적 지원 현황과 공적 책무성 부재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함. 분석 결과, 기술은 정부로부터의 유무형의 지원을 통해 개발, 보급되었지만 이 기술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적 책무성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
- 결과적으로 각종 공적 자금과 정부의 혜택을 받은 국내의 코로나19 진단키트는 개별 기업의 이익으로만 귀결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의 가장 큰 요인은 정부가 공적 지원의 결과물에 대한 공적 책무성을 기업에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임. 이는 코로나19라는 전지구적 공중보건위기 상황 극복에 역행하는 흐름임.
-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시민사회는 감염병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 관련 기술을 공유하고, 지적재산권을 유예할 것을 요구해왔으며, 이에 각국 정부들도 공적 책무성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예컨대 최근 스페인 정부는 규모 있는 고소득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출범한 코로나19 기술 접근 풀(C-TAP)에 참여하고 스페인 국가연구위원회(CSIC)가 코로나19 진단키트 기술을 공유할 것을 약속하였음.<sup>30)</sup>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C-TAP 참여나 지적재산권 유예(트립스 유예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 또한 공적 지원을 받은 민간 기업이 중·저소득국가의 접근성 보장과 기술이전을 통한 현지 생산 확대 등의 공적 책무성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한 사례도 있음. 2020년 3월 영국 정부는 영국의 진단 기술 기업인 멀로직(Mologic)에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을 위한 공적 자금 백만 파운드(1.2백만 달러)를 지원하였고,<sup>31)</sup> 멀로직은 진단키트 개발 초기 단계부터 세네갈의 진단 키트 기업 디아트롭픽스(DiaTropix)와 협업하여 신속항체진단키트를 공동 개발함. 즉 이러한 방식을 통해 영국 정부는 고소득국가 기업의 진단 검사 가격을 지불할 수 없는 중·저소득국가에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진단키트를 공급하는데 기여한 것임.<sup>32)</sup>

30)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5.28). COVID-19 Virtual Press conference 28 May 2021. <https://bit.ly/3zLsF1X>

31) Devex. (2020.3.6). UK government to fund coronavirus rapid diagnostic test. <https://bit.ly/3iY8xDF>

32) Devex. (2020.3.17). Why the UK wants a new coronavirus test to be made in Senegal. <https://bit.ly/3zNH9hG>

- 앞으로 정부는 진단키트 기업에 대한 공적 지원 시 공적 책무성 조건을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명시하고, 연구의 결과물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기업에 요구해야 함. 나아가 정부는 공적 지원을 받아 개발된 진단키트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유예(트립스 유예안)를 지지해야 함.

민중건강운동(People's Health Movement, PHM)은...

전 세계 풀뿌리 건강 활동가, 학자, 정책결정자와 실무자, 시민사회조직, 학술기구들의 국제연대 네트워크로, 전 세계 80개 이상 국가에서 PHM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중건강헌장(People's Charter for Health)의 정신에 따라, 포괄적 일차보건의료와 사회적·환경적·경제적 건강결정요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민중건강운동(PHM Korea)과 함께 할 개인과 단체를 기다립니다.



 <p><b>시민건강연구소</b> PEOPLE'S HEALTH INSTITUTE</p> <p>홈페이지: <a href="http://health.re.kr">http://health.re.kr</a> 전자우편: <a href="mailto:people@health.re.kr">people@health.re.kr</a> 페이스북: @phikorea 트위터: @phikorea</p>	 <p>홈페이지: <a href="http://phmovement.or.kr">http://phmovement.or.kr</a> 전자우편: <a href="mailto:phmkorea@gmail.com">phmkorea@gmail.com</a> 페이스북: @PHMKorea 트위터: @PHM_korea</p>
--	--